코딩 1도 몰랐던 쇼핑몰 대표의

# AI 에이전트 실전 세팅 완전정복

## 클로드코드 & Orca

8번 막히고 8번 뚫었다.
그 과정을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공개한다.

**박N잡**
10년차 온라인 셀러 대표

실제 오류 8가지 | 프롬프트 30선 | 43페이지

# 1장. 코딩 1도 몰랐던 내가 이 실험을 시작한 이유

*"쇼핑몰밖에 몰랐던 내가, 유튜브에서 AI 에이전트로 72시간 안에 돈 버는 영상을 보고 직접 따라 해보기로 했다"*

## 늘 아이디어는 있었다 —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나는 지난 10년간 온라인 쇼핑몰 셀러 대표였다.
직접 판매도 했고, 다른 대표들의 광고 상위노출 작업도 대행했다.
수십억대 매출을 내는 대표들 옆에서 마케팅 노하우를 무료로 나누고, 초보 셀러들의 매출을 끌어올려주는 관리자 역할도 오래 했다.

뭘 팔아야 팔리는지, 어떤 문구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지는 몸으로 익힌 감각이었다.

문제는 그 감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단계였다.
"이런 랜딩페이지가 있으면 전환율이 오르겠다."
"이 작업만 자동화되면 훨씬 빨리 돌릴 수 있겠다."
아이디어는 늘 있었다. 하지만 만드는 건 언제나 내 몫이 아니었다.

웹사이트를 만들려면 개발자를 구해야 했다.
뭔가를 자동화하려면 외주를 맡겨야 했다.
견적, 일정, 의도 전달, 수정 요청 — 그 과정 자체가 병목이었다. 아이디어와 결과물 사이에 항상 다른 사람의 시간과 비용이 끼어 있었다.

거기다 매출 변동폭까지 너무 컸다. 플랫폼 정책 하나, 트렌드 하나에 이번 달 성과가 통째로 흔들리는 일을 반복해서 겪다 보니 점점 흥미를 잃었다. 그러던 중 유튜브·SNS 수익 구조에 관심이 생겼고, 지금은 유튜브·SNS·쿠팡파트너스·토스쉐어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

## AI 에이전트를 만나고 나서 병목이 사라졌다

전자책이라는 새 아이템에 관심이 생겼을 때도, 예전 같으면 똑같은 벽에 부딪혔을 것이다.
판매 페이지를 만들려면 또 누군가를 구해야 했을 테니까.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Claude Code 같은 AI 에이전트가 있었다.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다. 나는 이번에 코딩을 배운 게 아니다.
원래 갖고 있던 마케팅 지식 — 뭘 강조해야 사람이 지갑을 여는지, 어떤 구조의 페이지가 신뢰를 주는지 — 을 이제야 직접 실행할 수 있게 된 것뿐이다.